

바람의 교차점 - 배병우 사진 작품

글. 치바 시게오 전 동경근대미술관 큐레이터

모든 것이 [살아 있다]! - 그의 개인전을 보고 나올 때, 또는 그의 사진집을 다 보고 책을 덮을 때,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다. 배병우라고 하는 예술가의 생각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자신, 인간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맛있는 것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연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인간이다.

모든 것이 살아 있다 - 소나무 숲, 나뭇가지들, 꽃들, 바다, 수평선, 제주도의 한라산, 산들, 구름, 모든 것이 그의 사진 안에서는 [살아 숨 쉬고 있다]. 왜냐면 그의 사진 안에는 진짜 [바람]이 불고, 진짜 [공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 나름대로 예술적인 의도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가가 찍은 사진 안에 어쩌다 우연히 바람의 감촉이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배병우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는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불어오는 진짜 바람을, 소나무 숲의 잔가지와 잎사귀들을 흔들고 있는 진짜 공기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사진 작품 안에 실현하려고 한다. 마치 세잔느가 자신과 생트빅투아르산과의 사이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공간을 그 회화 작품 안에 [실현]하려 했듯이, 그러하다.

그가 찍은 사진 안의 [바람]을 나는 수많은 한국 여행 중에 체험했다. 물론 그러한 여행의 대부분은 배병우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와는 벌써 10년 이상 사귀어 온 친구 사이이다. 1996년 당시, 큐레이터로서 근무하고 있던 동경 국립 근대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미술전을 기획했을 때 이후로 줄곧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 전람회 이후도 나는 (근.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술에 대해서도) 한국 미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 방문을 거듭하는 사이에 그와는 더욱더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한국에 갈 때 그는 언제나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고, 그리고 그의 집이나 아뜰리에에 가서 나는 그곳에 머무른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날 그가 운전하는 차로 서울을 출발해 때로는 신라의 고도 경주의 소나무 숲을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고향인 아름다운 항구 마을 여수에 바다를 보러 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행을 다닐 때마다 나는 그가 사진 찍는 것을 지켜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그럴 때, 그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사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휴식을 취하거나 그의 주변을 산보하거나 겁도 없이 그를 흉내 내 소나무 숲의 사진을 내 조그마한 카메라로 찍어보거나 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장소의 바람, 그리고 흐르고 있는 공기를 제대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다.

사진이란, 보통은 사람들, 자연, 일상이나 사회의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등의 이미지를 그대로 찍는 것, 인간과 세계를 이미지로 찍는 일이다. 그러나 배병우의 사진은 전혀 다르다. 확실히 소나무 숲, 바다와 수평선, 산, 구름의 이미지를 멋지게 포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과정 또는 하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사진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소나무 숲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것, 바다를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요동시키는 것, 바다 끝에 있는 수평선과 바닷가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 산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사람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존재시키고, 새로 창조하는 것, 구름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배병우의 독창성이 있다. 내가 아는 한 그야말로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진에 이러한 가능성의 길을 연 사람이다. 그의 사진 작품을 사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술로서의 사진]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사진 안의 소나무 숲이 [호흡하고 있는]것은 그가 그 사진의 공간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사진 안의 모든 것이 살아 있는 생명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소나무 숲은 어떤 때는 마치 진짜 인간 같다. 그의 소나무는 언제나 우리 지어 있고, 집단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각각은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은 기뻐 보이며, 어떤 것은 슬퍼 보인다. 어떤 것은 춤추고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서 있기만 한다. 어떤 것은 소나무 숲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의 무리를 이루며, 무의식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 인간의 존재는 이러한 무리를 [송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우리들로부터는 독립해 있으면서도 우리들 곁에 존재하고 있다.

배병우는 한 사람의 동양인으로서 인류와 자연의 여러 가지 것(물론 소나무 숲에서 시작해서)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대립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인류 그 자체가 자연의 모든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인간과 소나무 숲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연 안에서는 모두 평등한 것이다. 그렇다 [자연의 앞에서는]이 아니라 [자연 안에서는]이다. 우리들 (인간과 소나무 숲)은 자연 안에서 함께 살아왔다고 배병우는 그렇게 믿고 있다. 양자가 통감하는 기억 안에서는, 즉 양자의 마음 안에서는, 우리들이 탄생한 그 날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렇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통된 생명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바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야말로, 결국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배병우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자연 그 자체인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여수를 방문했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름이었다. 둘이서 돌산도까지 갔다. 돌산도에서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유명한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 기대어 우리들은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 바람은 바다에서 불어와서 우리들을 감싸고, 지나치며, 그리고 우리들 내면의 깊은 곳에 뭐랄까 매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무언가를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때 내 곁에는 그 바람을 사진 작품 안에 실현하고 있던 한 예술가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경주의 소나무 숲을 갔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가을이었다. 우리들은 산기슭에서, 소나무 숲에서 조용한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오를수록 한편으론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만났다. 그리고 더 이상 소나무 숲도 거의 없는 정상 가까이에 도달했다. 즉 그곳에서 우리들은 두 개의 바람과 만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개의 바람이 만나는 것을 느낀 것이다. 물론 그 때도 내 옆에서는 그 두 개의 바람을, 아니 두 개의 바람이 만나 하나가 된 바람을 사진 작품 안에 표현한 예술가가 있었다! 목격자로서 말하지만, 배병우는 사진을 찍을 때 기법의 면에서 봐도, 예술적으로 말해도 아무것도 특별한 일은 하지 않는다.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의 천재적인 감성, 어부와 같이 바람을 읽고, 바람을 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 받은 감성 안에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배병우는 천재적인 이른바 어부인 것이다.

이 어부가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기다린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몸 자체가 끊임없이 바람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하늘로부터, 바다로부터, 대지로부터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몸은 바람이 교차하는 장소이며, 모든 바람은 이 교차점을 통과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불어온다.